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학습내용-1] 성폭력의 개념

1) 다양한 기준의 성폭력 개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하게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하는지, 어떤 언행을 성폭력으로 개념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의 개념은 성과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누구나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폭력의 범위와 판단 근거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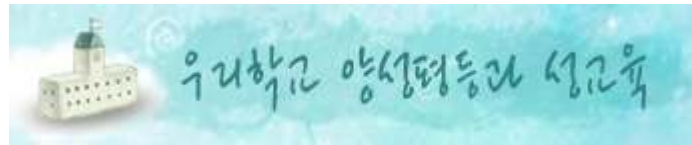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그동안 논의 되어온 성폭력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성폭력과 좁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말한다. 이 개념은 강간,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인 폭력과 아내구타, 성매매,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성적인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여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근거하여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희롱 등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까지를 성폭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인 폭력으로써의 성폭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2) 현행법에서의 성폭력의 개념

현행법에서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1990년 초반까지 형법 제32장에 '정조에 관한 죄'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개념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1995년 형법 개정 시에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는 개념 정의가 아니라 성폭력 유형을 명시한 정도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여전히 성폭력의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형법 등 해당 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관련법은 여전히 개념 규정을 비롯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3) 보편적인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反)한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즉,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성적인 언행 등이 포함된다.

[학습내용 -2]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의 발생률과 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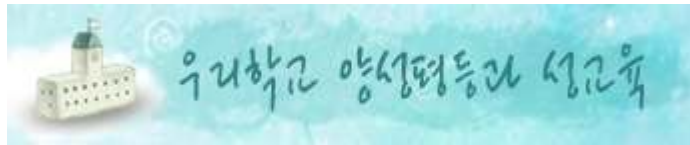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매년 몇 건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고, 성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성폭력 중에서 강간에 한정하여 추산한 결과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의 연구 결과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경우 신고율이 6.1% 정도였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94% 이상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 법과 제도의 미비로 자신의 피해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범죄의 피해자이면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인터폴에서 세계 각국의 성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위라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스웨덴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각 나라에 신고된 강간 건수만으로 낸 통계이므로 신고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 발생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난 실태만으로도 우리사회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2) 상담 통계로 본 성폭력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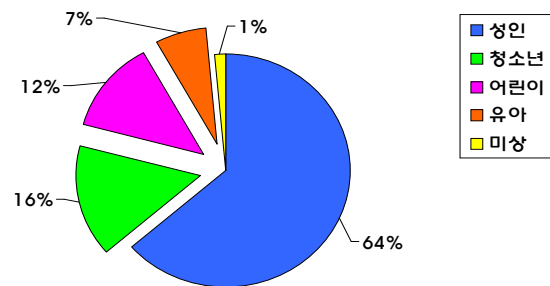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인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우리사회의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다음의 통계는 성폭력 전문 상담소의 5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것인데 매년 비슷한 추이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상담 통계의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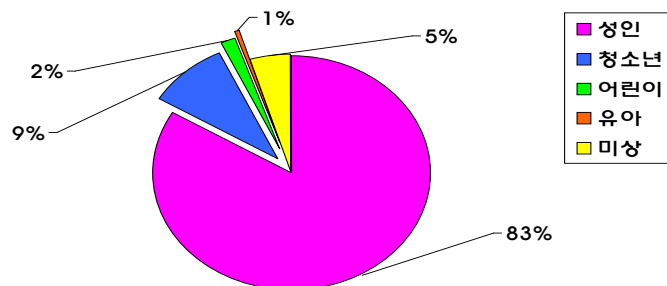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매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는데 대체적으로 성인피해가 64%, 청소년 16%, 어린이 12%, 유아 7%, 미상 1%로 나타났다.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미성년자가 3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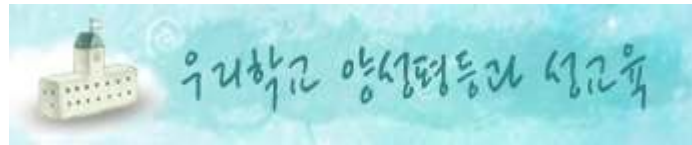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2)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마찬가지로 성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성인이 83%, 청소년이 9%, 어린이 2%, 유아 1%, 미상이 5%로 나타났다. 미성년 가해자가 12%로 최근의 특징적인 현상은 미성년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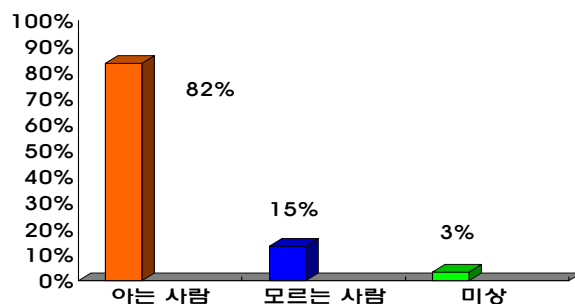
<그림 2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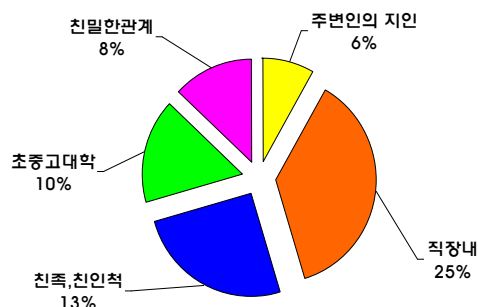
성폭력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상담통계에서 보면 얼마나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를 새삼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무려 82%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5% 정도였다. 또한 남성 피해도 일정수준이 상담을 해 오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는 95% 정도로 남성피해는 5% 정도가 상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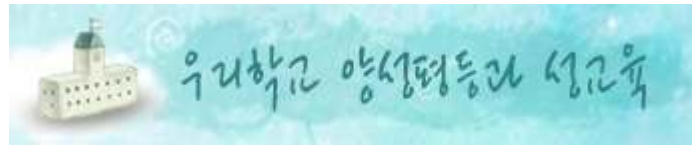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그림 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직장 내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이 13%, 친밀한 관계가 8%, 초중고 대학이 10%, 주변인의 지인이 6%로 나타났다.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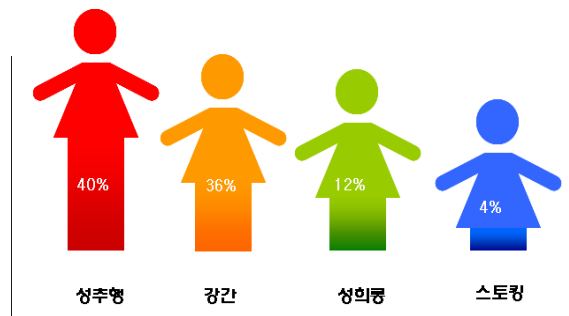
<그림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5) 성폭력 피해 유형

피해 유형별 피해자를 보면 성추행이 40%, 강간이 36%, 성희롱이 12%, 스토킹 4%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피해 유형>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 통계로 파악한 성폭력의 실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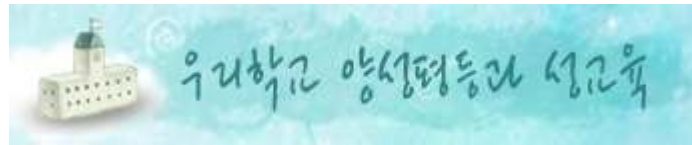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학습내용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나쁜 경험 정도로 축소시켜서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여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기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전체 성폭력의 80%가 넘는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78%가 주변인으로 평소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주변 놀이터 등 피해자와 친숙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길이나 퇴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하기도 한다.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2)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 가해자는 남달리 성격이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일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해내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하는 것은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발산하려 하거나 남성다움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성적인 공격에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3)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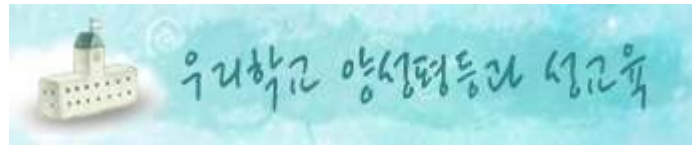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고 그 성충동이 절대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즉각적이고 우발적인 거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충동 역시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욕은 참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 받아왔기 때문이다.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관, 그리고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무감각이 성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4)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젊은 여성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성적인 능력과 매력이 있는 여성을 말한다. 즉 젊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과 젊음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35%이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20% 이다. 또한 생후 3개월 된 아기부터 77세 할머니, 그리고 성인 남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이는 짧은 치마와 배꼽티를 입은 여성은 남성의 성본능과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폭력 피해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름에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중에 어린이가 25% 이상이라는 것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은 여성의 유혹적인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유혹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나 남성이 성충동을 느끼면 성폭력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야한 옷차림을 한 여성은 성폭력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여성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는 알아야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 유발론’으로 사건이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지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6)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형태인 음란물에서 묘사되는 모습이다. 음란물은 남성들의 무한한 성적 공상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적인 성관계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남성들에게 강간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강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 시키는 잘못된 문화기제이다. 특히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강간을 당한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21년이 지나서 가해자인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간은 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파괴시키는 극단적인 폭력인 것이다.

7)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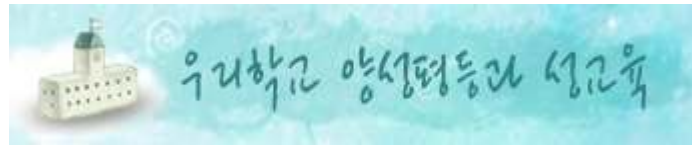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흔히 “진정한 의미의 강간은 있을 수 없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성이 정말 싫었으면 당하고 있었겠느냐?”,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위기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고 무력해진다. 또한 가해자들은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저항해도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자라면서 ‘여성다움’을 주입받아 온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 경우 저항하기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쉽다. 또한 성폭력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좀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행하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그 누구도 범죄 앞에서 공포심 없이 힘껏 저항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8) 여성이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성폭력 피해 장소는 직장, 학교, 학원, 동네, 집 등 피해자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조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논리일 뿐이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9)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자신의 몸이 하나의 물건처럼 대상화 되는 경험을 했다고 호소한다. 어떤 가해자들은 실제로 흉기를 들고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강간이 성관계로 인식되는 이유는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일어나 행위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이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렇듯 강간이 성관계로 인식되어 순결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인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 않게 된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책감, 수치감, 절망감을 느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19차시]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10) 데이트에 응하여 집까지 따라간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한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성행위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집에 따라간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 상대방이 성행위를 원치 않아서 거절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한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데이트 관계는 성적 친밀감이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훈련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